

합격수기(서울)

안녕하세요 서울합격자입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을 하던 해에 시험을 봤었고, 재수 때 1합 후 최탈했고, 삼수 때 최종합격했습니다. 공부방법과 그에 대한 생각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I. 1차 전공공부
- II. 실기
- III. 면접

I. 1차 전공공부

1. 합격 수기를 확인! →공부방향 설정.

① 초수생/ 수석차석/ 나와 비슷한 상황 확인 (EX: 일병행)

**공부의 방향설정을 위해 합격수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때 초수생은 단기간내 효과적인 공부법을, 수석차석은 임용 시험의 방향성을 피고 있을 확률이 높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며 공부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며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2. 한 강사 강의만 들었나요?

위상쌤 1년 커리 일년 커리 타고 나머지 한명도 타 강사 책과 필요한 강의 활용했어요.

*타강사 활용

-공부하면서 모르는 내용있을 때, 동일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활용했어요.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다른 책의 표현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표현은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있습니다. 이를통해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 또한 위상쌤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추가해서 메인책에 필기했어요.(단권화) 특히 재수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했었고 점수 꽤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는 오히려 많이 패스하고 기본커리만 집중하긴 했는데, 내 기본서에는 없고 타강사에는 있는 내용들! 작년에는 외웠지만 올해는 외우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dl 4점정도는 났습니다. 만약 서울을 치실 것라면 같이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3. 상반기) 이해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3,4월 이해에 초점 ,5,6월 이해를다지기 ! 정말 최대 6월까지는 이론에 대한 이해력에 힘쓰시길 바래요.

(물론 5월부터는 암기 같이가야함. 이해가 부족해도 암기 같이 안가면 안됨). 저는 상반기에 질문을 엄청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거는 먼저 찾아보고 안되는 부분은 질문했어요. 이해를 위한 질문에 초점을 두었고 하반기에는 질문은 많이 안했던 것 같아요.

3. 쉬는 시간- 구글 및 유튜브 활용으로 이해도를 높혀보세요

① 쉴 때 틈틈이- 모르는 내용 구글, 유튜브에 쳐서 봐볼 것. 없는 거 거의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로 미술사부터 미학등등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영상 많습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 위에서 질문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질문 전에 유튜브나 구글링했습니다. 그러면 재밌기도 하고 기억도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4. 복습팁) 공부는 똑같은 비중으로 NO ★

① 처음 회독에서 가장 중요한 '상'을 두 번 회독에서 '상, 중' 을 세 번 회독에서 '상,중,하'를 !
(회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요한 '상'은 회독을 할수록 여러번하니 더 빨라져서 점점 없어가는느낌)

* 초반에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숙지할거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가장 빈도가 높고 중요한 상 , 그다음 중 정도는 계속 회독하며 익혀놓겠다는 마음 ;)

* 중요도는 이론 강의할 때 보통 쌤들이 말해주시죠. 말해주는 기준도 기출 기반이겠죠?

5. 필독서 꼭 봐야하나요?

강사 책 +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구글, 유튜브 정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 논문 보고 필독서보고 심도있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필독서처럼 공인된 내용을 블로그 같은데 정리하거나 유튜브에도 쉽게 많이 소개해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거나 간단히 정리해서 보충하는 정도로 활용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논문 및 필독서 열심히 읽고 정리한 친구와 아웃풋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물론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를테니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주변에서 뭐도 보고 뭐도 보더라 ~한다고 이런 말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6. 시기별공부

3~4월

기본적으로 위상쌤 1년 커리따라 갔습니다. 그렇기에 3,4월 개념강의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때 [목차확인 → 이론 강의 듣고(이해) → 끝나자마자 배운 내용 복습(이해-미루지X) → 다음날 인강들은 내용 한번에 확인] 이 패턴을 꼭 지켰어요.

① 목차 확인: 인강 해당 범위의 목차 제목을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5분 이내)
(대단원에는 뭐고, 소단원에는 뭐뭐가 있구나 !)

② 반드시 바로, 그날 내 복습을 했어요.

*인강을 많이 들었을 때 → 늘어지게 시간 들여 전체를 다 복습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리드미컬하게 공부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도가 높은 ' 상' 수준을 확실히 알고 간다는 느낌으로 이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지치는 정도도 줄어듭니다.

③ 다음날 어제 바로 복습한 상수준 + 중수준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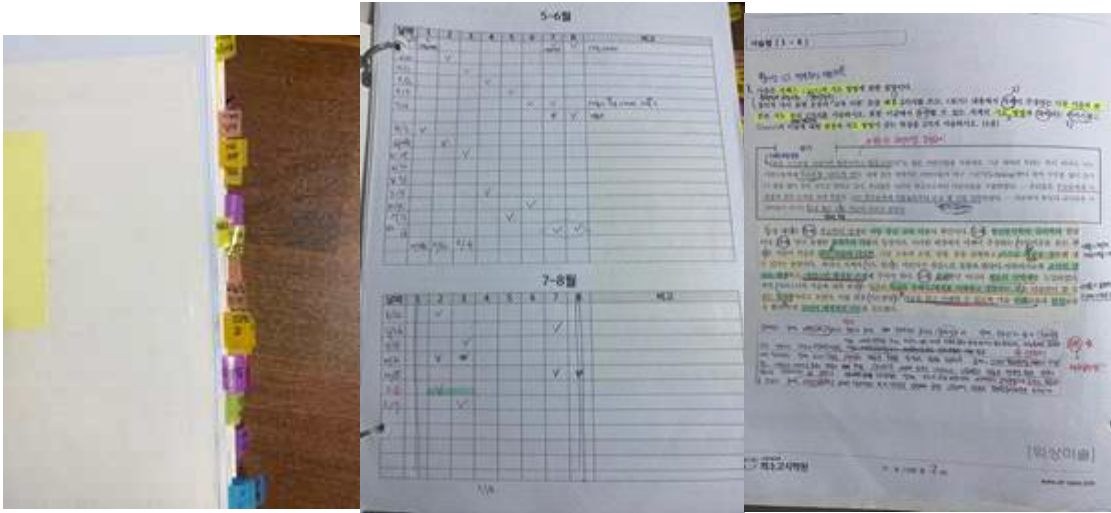
- 이때 단순히 눈으로 스캔이 아니라, 목차를 머리에 그리면서 어디쯤 해당하는지 머리로 생각하면서 봐야 효과적이예요.

더불어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갔습니다. 상반기에는 최대한 이해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해자체에서 모르는 것은 없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적어 봤다가 밥 먹는 시간이나 자기 전 쉬는 시간 등 유튜브, 구글 찾아봤고 웬만하면 재밌고 도움되는 자료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 더 재밌기도 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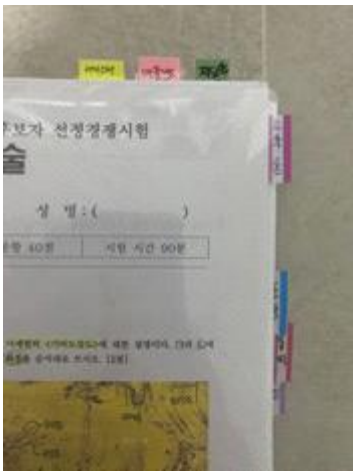
5~6월

장쌤 5,6월 기출분석+서술형문제는 5,6월뿐 아니라 이후에도 복습 많이 했어요. 이 자료를 활용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때 저는 빨강 파랑 노랑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놓아서 앞으로 나올 부분, 중요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 등을 표시했어요. 또한 문제 유형별로 인덱스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 '비교대조', '지도안일치' '선택적용' 물론 명칭은 제가 알아보기 쉽게 비슷한 유형을 묶어서 표시했어요. 끝까지 비슷한 유형을 틀리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약한 유형만 꼭 보곤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됐어요. 꼭 추천합니다.(아래 사진 중 첫번째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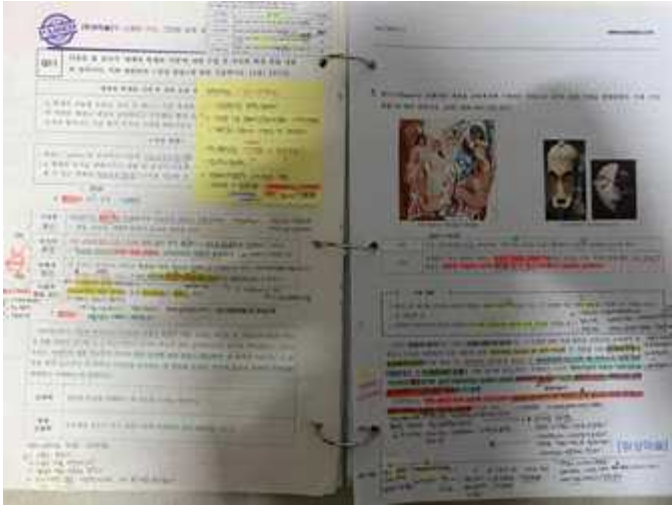
또한 회독 표 만들어서 5,6월 첫페이지에 넣고 활용했는데 유용했어요(두번째사진 참고)
 뿐만 아니라 많이들 하시겠지만 문제 밑에 모범답안 붙이고, 제 답변 같이 붙여서 정리했어요. 세번째 사진 참고) 이
 때 연두색은 무조건 들어가야하는 키워드. 주황색은 내 머리속에 없는 내용으로 추가해서 공부할 부분 ! 이렇게 나
 림의 규칙을 정하고 계속 적용하시면 공부하실 때 직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7~8월
 7,8월 문풀 강의 듣게되면 영역별로 빠르게 쪽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원래 제가 계획 짠 기본서 회독에서 회독 시
 영역별로 같이 쪽 보고 회독 했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특히 교육론에서 아이스너, 애플랜드 등 교육이론 외에도
 개별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반복해서 문제 나옵니다. 나올때마다 새롭죠.. 문풀에서 아이스너만 5번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스너 쪽모으면 아이스너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처럼 부분부분 모아
 서 그부분 공부할때는 같이 회독합니다. (사진참고) 7,8월도 여러번회독 했어요.
 또한 기출도 같이 쪽 보면서 나올만한 부분체크해서 기본서 회독 때 비중을 더 두고 반복 회독했습니다.



9~11월
 기본서 4주에 전체 > 2주에 전체 > 10일에 전체 > 5일전체 > 3일전체 > 하루 전날 전체 보기 등의 방식으로 기본서 회
 독 이어갔습니다. 이때 제가 기출 보면서 이제 나올 법하다, 나올 수도 있겠다하는 주제는 문풀에서 거의 다뤄주셨
 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본서에 다시 첨부해서 회독 때 계속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나 문풀 하시다
 보면 글자로는 이해하고있었는데 문제를 풀면 접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통해 개념이해자체를 높일 수 있
 는 문제라면 특히나 함께 첨가해서 같이 회독 돌렸습니다. (사진참고)



7.실전 팁)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시험장 당일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시험장과 유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면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모의고사를 언제 풀든 실제 시험시간으로 시간을 맞추고 진행했습니다. '시, 분침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쓰기 시작해야지' 와 같은 나름의 규칙이 있을거예요. 시간을 항상 그시간대로 맞춰 풀었어요.

그날 먹을 것도 미리 먹어보면서 어떤 것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안되더라.. 졸리더라.. 등등을 확인하고 시험날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험 최소 1달전에는 자신을 잘 확인하면서 그날 최대한 평소 루틴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I 실기

1. 평달 다녀야 하나요?

저는 평달 6,7월에 2달간 소묘디자인 다녔고, 1차 끝나고 주 4회 학원 나갔습니다. 만약 초수거나 서울 실기 경험이 없으신 경우 평달 다니셔서 어떤 시험인지를 익혀두는 것 중요해요. 그 차이가 큼니다. 실기기초가 전혀 없는데 시험 끝나고 하기는 꽤나 힘든일 같아요. 물론 붙는 사람들 있습니다. 경험상.. 예고 나오신 분들은 1차 끝나고 와도 실기를 잘 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면접 수업실연 1차 점수에서 그만큼 많이 보충이 되야 해요.

2. 시험실 상황은 어땠나요?

가장큰 변화는 올해 모델이 없었고, 사진으로 주어졌으나 사진 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다음 노랑부분에 사람들 일렬로 쪽 앉아서 진행했어요. 디자인 소묘 모두 주변 사람 볼 수 없도록 계속 주의를 주었고, 작년과 달리 디자인은 올해 시험 내내 앉아서만 해야했습니다.

교탁	

III 면접

-올해 면접에서 2점, 수업실연에서 1.5점정도 깎였습니다. 작년에 면접 준비가 매우 부족했는데 올해 만회했다고 생각 드네요 ^^ 간단히 면접준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 면접역시도 내용+말하는 형식 이 2가지는 모두 갖춰야합니다.

①내용

[각 파트별로 자신만의 답변 + 교육관정립] 필수입니다.

저희 1차에서 문풀을 하는게 똑같이 묻지 않더라도 시험에서 응용해서 답을 쓸 수 가 있기 때문이죠. 면접도 그렇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력이 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이라 함은 해당파트별 알아야하는 개념 뿐 아니라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지도방안을 교과, 학급운영 측면에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 동아리 운영을 한다면 무엇을 할 것 인지 등 파트별로 나의상황에 적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온라인수업개강에서 3월에 어떤 활동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평소 동아리 운영하면 이거 답해야하지 했던 주제를 온라인상황에 맞춰 변경해서 답했습니다. 그 외 모든 답이 그랬어요. 그러다보니 답변 전에 머릿속에 뭐라고 말해야할지 정리가 바로바로 됩니다.

“면접 대답할 때 막막하다.” “짧은 시간에 생각이 멈추는 것 같다.” 하는 등등의 고민에 대해 경험상 내용을 채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교육관 반드시 물어보죠. 교육관 무엇입니다+ 근거 이렇게 2줄 준비 꼭 해주세요. 올해는 교육관문제만 2번 물어 봤습니다. 교육관이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육감 신년사도 읽어보고 또 면접을 공부하다보면 지금 어떤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보입니다. 본인의 신념에 맞는 교육관을 세우되 이와 방향성을 같이하시는 것이 좋겠죠?

②형식

구조화해서 답해야하는 것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서론은 빼고 본론 +결론 한줄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주장+ 근거’ 이렇게 2문장 정도로 대답했고, 결론은 교사가 된다면 이런 교사가 되겠다 는 포부 OR 자신의 교육관, 학생관, 교사관 등을 녹여서 답하는 한줄로 마무리했습니다.

2. 시험상황은?

-앞에 세분 중 한명은태도, 한명은 시간(혹은 가끔 적음) 한명은 내용채점.

-태도보시는 분은 뚫어져라 저만 보시고, 한명은 가끔 봤다가 안 봤다가 마지막 분은 거의 쳐다보지 않으시고 적기만 하십니다.

3. 태도(자신감(+헛소리)/ 시선처리)

-자신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에 많이 떨었었는데 자신감은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크게 좌우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이번에는 많이 준비하고 갔던지라 보기에는 자신감 있게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떨었지만요 ^^)

-헛소리: 물론 저도 대답하면서 논리가 부족한 말.. 했습니다. 속으로는 저 스스로도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점수를 보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이 조금 부족해도 자신감있는 태도와 눈맞춤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처리: 저는 태도 보시는 분이 정말 뚫어지게 보셔서. 저도 같이 그 분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가끔. 다른분 고개 드시거나 즉답형 물어볼 때, 그 분 얼굴 보고 대답했어요.

끝으로 이 시험은 마인드컨트롤만큼 큰 무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가 안될 것 같아 2차 준비를 안했던 초수와, 1차 발표 후 정신들어 급급하게 시작했던 2차 준비를 한 재수!때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끝까지 준비했었다면 아마 1년을 단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 솔하게 들었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는 말을 뼈

저리게 공감하게 되었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꼭 보답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인드컨트롤을 하며 꼭 원하는 결과 있으시길 언제나 응원합니다 :)